

“독립군 여자 저격수 역할, 욕심 안 날 수 있나요”

영화 '암살' 전지현

갈피 못잡던 연기, 시대 이해하니 저절로 내가 좋아하는 작품 택해야 후회가 없어 배우에게 중요한 건 마켓... 할리우드 꿈



“지금은 덤덤해요.” 영화 '암살'(제작 케이퍼필름) 개봉을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전지현(34)은 설렘이나 부담 대신 담담하게 관객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열린 시사회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15년 동안 여러 영화를 경험한 데서 자연스레 갖게 된 자신감인 듯 보였다.

“20일 저녁 VIP시사회를 찾아온 지인들에게 영화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좋은 말도 필요하지만 냉정한 평가도 중요하다. 중반에 조금 지루했다는 사람, 하정우와 로맨스가 영 좋했다는 반응도 있더라.”

전지현은 이제 대중이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신을 이끄는 배우가 됐다. 그 시작은 2012년 영화 '도둑들'이다. 이어진 영화 '베를린'과 중국 한류의 부활을 알린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까지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 데도 모두 성공했다.

“많은 분이 믿지 않았지만(웃음). 예나 지금이나 내가 좋아하는 걸 택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와 대중의 눈높이가 딱 맞은 건 아닐까. 앞으로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지 호기심도 생긴다. 그래도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을 택하는 게 맞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암살'에서 전지현은 1930년대를 감한 의지로 견뎌낸 항일 독립군의 삶을 펼친다. 영화에는 일제강점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낸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지만 신병과 의지가 가

장 강한 주인공은 전지현이다. 다른 여배우를 떠올리기 어려울 만큼 적역이란 평가를 받지만 그는 “촬영 초반 잘 풀어나가고 있는지 모른 채 갈피를 잡지 못했다”고 돌이켰다.

“솔직히 답이 안 나왔다. 수많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1930년대를 겪지 않은 나로서는 그 시대 사람의 마음이 쉽게 짐작되지 않는다. 독립군? 어쩌면, 나라면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만 했다. 시대를 알고, 인물을 받아들였다.”

전지현은 표현에 꽤 솔직한 편이다. “시나리오가 재미있고 역할도 멋진 데 욕심이 안 날 수 있겠느냐”며 ‘암살’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한 그는 한편으로는 “일할 때 간혹 부끄럽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도 했다.

“이제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고 여긴다. 10년 넘게 연기자로 살아왔다. 내 감정보다 주어진 일을 담담히 잘 해내야 할 때이다. 그래서 더 거침없이 하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자신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암살’을 통해 전지현은 ‘예쁘다’보다 ‘멋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보이시한 매력’이 엇보인다고 말을 건네니, 그는 놀란 말투로 “아직 모르셨어요?”라고 되물으며 “사실 어릴 때부터 멋있게 생겼다는 말을 더 많이 듣고 싶었다”며 웃었다.

여전히 할리우드를 향한 열망도 품고 있다. “배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켓”이라고 말하는 표정이 단호하다.

“연기자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연기가 어떤 시장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다고 본다. 할리우드도 꿈꾼다.”

가정이 있어 “일을 하지 않을 때 더 바쁘다”는 그는 “근심걱정이 없어야 연기에 더 집중하는 타입”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결혼 이후 선보인 세 편의 작품이 연달아 흥행한 것을 두고 ‘결혼과 동시에 근심이 없어졌나 보다’고 말을 건넸다. “그렇게 되나요? 하하!”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 저격수 역할을 맡아 총기액션을 선보이는 전지현. 자신감과 여유가 드러나는 표정이 사뭇 매력적이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3년 7월 22일)

1926년 개봉 나운규의 아리랑 일본인이 원본 필름 소장 주장



민요 '아리랑'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임을 말해준다.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된 '아리랑'이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문화재보호법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리랑'은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할 수 없었다. 다행히 법규정은 바뀌었고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아리랑' 하면 떠오르면 영화, 바로 춘사 나운규의 '아리랑(사건)'이다. 하지만 그 원본 필름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1993년 오늘, 일본의 아베 요시시게씨가 이를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매된 국내 한 주간지를 통해서다. 그는 나운규의 '사랑을 찾아서', 윤백남의 '운명전' 등 1920~30년대 한국영화 60여편의 중요 필름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였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근무하면서 확보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를 한국에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 그는 그해 9월 '선데이 마이니치' 인터뷰에서 “남북통일이 되면 원본을 내놓겠다. 그 전이라도 원본을 복사해 돌려줄 계획이 있다”(1993년 9월1일자 경향신문 재인용)고만 밝혔다.

이에 재일 연극인 김경원씨 등이 현지에서 이끈 '아리랑 되찾기 100인회', 국내 '아리랑 연구회' 등이 되찾기에 나섰다. '우리 민족영화 발굴 모임'도 힘을 모았다. 1998년 5월 “한국 정부가 일본에 공식 요청하면 돌려줄 의사가 있다”는 아베씨의 언급에 정부 차원의 노력도 이어졌다. 하지만 아베씨는 반한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년 뒤, 아베씨는 2005년 2월 세상을 떠났다. 상속인은 없었다. 직후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이 일본 민주당 백진훈 참의원 등과 함께 필름 확인에 나섰다. 일본 문화청은 아베씨의 장고를 조사했지만 필름을 찾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2010년 8월에는 한민족아리랑연합회 김연갑 상임이사가 일본국립필름센터에서 아베씨의 소장 필름을 확인했지만 '아리랑' 등 한국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총독부 건물이 완공된 1926년 10월1일 서울 단성사에서 개봉한 '아리랑'은 이제 항일의 정서로 민족의 울분을 달랜 '아리랑'의 구슬픈 가락으로만 남았다. 그래도 되찾기 노력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윤여기 기자 tadada@donga.com

오피스·엘리스·위로공단...8월 극장이 '작은 영화' 쏟아진다

블록버스터들의 흥행 격돌이 펼쳐지는 여름 극장가, 하지만 대작이 전부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완성도와 경쟁력을 갖춘 작은 영화들이 8월 잇따라 개봉한다. 물량공세를 퍼붓는 대작과 맞붙는 탓에 상영관 확보부터 난항이 예상되지만 앞서 여러 해외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흥행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8월 중순 개봉하는 고아성·박성웅 주연의 '오피스'(감독 홍원찬·제작 영화사 썬)는 한 회사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그린

스릴러 장르다. 섬뜩한 사건이 연속해 펼쳐지는 영화는 5월 제68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먼저 공개돼 신선한 소재와 완성도로 호평을 이끌어 냈다. 고아성이 맡은 인턴사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회사의 풍경은 최근 '미생'으로 상징되는 청년실업 문제를 보여주며 현실감까지 높였다.

이정현 주연의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감독 안국진·제작 카파필름)는 처절하다 못해 잔혹한 환경에 놓인 한 여성의 삶을 비춘다. 표현 수위가 꽤 높은 장면이 다수 포함된 데

다, 노력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여성의 이야기란 점에서 지난해 화제작 '한공주'와 맥이 닿아 있다. 완성도에 비해 대중성은 적은 편이지만 배급사 CGV아트하우스의 전국 체인망을 통해 관객에게 소개되는 만큼 흥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극장가 최대 성수기인 8월13일 개봉하는 '위로공단'(감독 임흥순·제작 반달)도 있다. 흔히 '여공'으로 불리는 과거 공장 여성노동자와 현재도 달라지지 않는 그들의 삶을 담담하게 그렸다.



▲성실한 나라의 엘리스 5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국내 작가로는 처음 황금사자상을 수상해 화제를 뿌린 작품이다. 이해리 기자 goll1024@donga.com

빅 마우스

●“황수경의 교양에 눈을 뜨게할 때니저와 리허설을 했다.” (제국의아이들 황광희) 21일 케이브텔레 KBSN '우리가 응원한다. 청춘하라' 기자간담회에서, 황수경 전 KBS 아나운서와 공동 MC를 맡은 데 대한 부담감을 표현하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천기를 타고난 정통명인 강민정 원장



곡동으로 범당을 옮겨, 서울의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자 왔다. “우리네 무속인의 가장 큰 역할은 고통 받는 분들을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영리를 탐하지 않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성실성

게 도와준 적도 있고, 부동산 매매건도 남다른 신통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 그녀의 신통하고 영험함이 가히 소름이 끼칠 정도다. 요즘에는 가정불화, 애정, 사주관상, 자녀진학, 조상묘, 사업운, 승진, 취직,

그녀는 재물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일부 무당들이 하는 거액의 굿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차이다. 이는 바로 그녀의 자질과 인품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녀가 더욱 유명한 이유는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어떤 사연으로

천기를 타고난 전통 무속인, 신점 병점·자녀방황 가정불화·혼인애정·사업·삼신

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알면서, 불안정한 현대인의 삶을 살아 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바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한다. 그 예로 정신병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데려와 환자 곁을 치유했고, 온몸이 아픈 원인을 환자의 병명을 집어낸 적도 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방황하는 끼를 잡아 그가정에 편안함을 안겨준 바도 있다. 한번은 사업파산으로 찾아온 손님을 다시 일어나

매매 등 여러 이유로 예약이 밀릴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녀는 점사를 볼때 방울 엮진 간혹 몸에 염주를 걸고 토속적인 신령의 신을 받아 점을 본다. 신이 실리면 그 영험함은 가히 신력이다. 항상 신력이 실려있기 때문에 그녀의 점사는 정확하고 용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에 그녀는 모두가 다 모시는 신령님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듣고 유명한 사들 까지도 그녀에게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간다.

왔는지를 알아내고 또 그사람의 성격까지를 개조시킨다는 것이다. 오늘도 그녀는 불치병에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구제하는 길이 자기 몫이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 그녀는 현재 무속협회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독자예약상담 : 02)2602-3078 042)384-0078 010-3384-0078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까지산역 부근)